

Twinwords 의 辨別的 資質

全 亨 璿

目 次

- | | |
|------------|---------------|
| 1. 序 論 | 2.2 母音의 對立 |
| 2. 本 論 | 2.3 同一形態素의 反復 |
| 2.1 子音의 對立 | 3. 結 論 |

1. 序 論

現代言語學에서는 모든 言語에 共通되는 普遍的 特質을 認定하고 있으며 個別言語의 特質은 大體로 表面上의 것으로 보고있다. Suzette Haden Elgin은 人間言語의 特質을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¹⁾

1. <Expect for sign languages, which are rare, the language will be composed of> meaningful sounds.
2. The language will have from about 10 to 70 meaningful sounds ; furthermore, all languages will choose from the same potential set of sounds.
3. The language will wave both consonant and vowel sounds, and the number of vowels will be at least two.
4. The language will have a way to make statements, quitiesons, commands, and exclamations.
5. The language will have a way of making sentence negative.
6. The language will have both noun-like and verb-like etements. nouns and verbs.
7. The language will have a way of indicating the case relationships between nouns and verbs.
8. The language will have a way to indicate the tense and aspect of the verb.
9. The language will have grammar rules that allow the deletion of parts of sentences, and rules that allow them to be moved about.
10. The language will have at least two ways of combining small sentences into larger ones.

이러한 共通特質을 바탕으로 하고 各 個別言語들은 個性을 지니고있다. 朝國語를 母國語로 使用하는 사람에게는 「저고리 치마」라고 떠오른다고 보다는 「치마 저고리」로 認知空間에 떠

1) Elgin, Suzette Maden (1979), *What Is Linguistic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p. 3-9.

오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위 아래」가 아니고 「아래 위」이며, 「밖안」이 아니라 「안밖」이 韓國語의이라고 보겠다. "Day and night"는 英語의이라면 「밤낮」은 韓國語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認知空間을 可能한 대로 考察하면 人間 言語能力 (linguistic competence) 을 음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극히 추상적이고 복잡한 言語能力을 完全無缺하게 究明할 수는 없을 지라도 部分的 特質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이 論文에서 twin-words를 살펴보려고 한다.

英語에서 "dilly-dally" "zig-zag" "chit-chat" 같은 쌍둥이말은 韓國語에서 「싱숭-생숭」 「썰룩-썰룩」 「티격-태격」 같은 것과 그 앞뒤의 形態素 사이에 對立關係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英語와 韓國語에서 똑 같이 앞 形態素의 첫 母音 "i" 또는 「이」가 뒤의 形態素에서는 "æ" 또는 「애」로 音韻的 母音對立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英語의 "fuddy-duddy" "tootsie-wootsie" "hootchy-kootchy"에서 첫 形態素의 子音이 뒤의 形態素에서는 다른 子音으로 되어 子音的 對立을 이루고 있는 것도 韓國語의 「긴가-민가」 「울긋-불긋」 「우락-부락」에서 子音對立을 이루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또 英語에서 "clop-clop" "tick-tick" "quack-quack" 같은 쌍둥이말과 韓國語에서 「똑-똑」 「횡-횡」 「팡-팡」과 같이 앞의 形態素와 뒤의 形態素가 精確하게 같아서 比較的 단조로운 경우도 있다. 英語와 韓國語에서 공통으로 이 단조로운 반복형태는 모두 擬聲語가 많다.

이처럼 세 가지 類型의 쌍둥이말의 word-formation 즉 reduplication 현상이 韓國語와 英語에서 모두 같은 性向을 가지고 發生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 事實은, 人間言語에서 各各 個別言語의 差異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모든 言語의 共通的인 性質이 있고 그것이 더 根本的인 言語의 本質이라고 보며, 個別言語의 差異는 지체적인 差異에 不過하다고 보는 現代言語學 理論을 입증해 주는 좋은 例가 될 것이다.²⁾

2. 本 論

單語形成過程(word-formation)을 要約하며 Compounding, Derivation, Invention, Echoism, Clipping, Acronymy, Blending, Back-formation, Folk Etymology, Antonomasia, 및 Reduplication이 있다. 이 중에서 쌍둥이 말은 맨끝에 있는 Reduplication에 의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Norman C. Stageberg는 다음과 같이 Reduplication에 관하여言及하고 있다.

"Reduplication is the process of forming a new word by doubling a morpheme, usually with a change of vowel or initial consonant, as in "pooh-pooh", "tip-tip", and "hinky-panky". The basic, originating morpheme is most frequently the second half, like "dilly-dally", but it may be the first half, like "tick-tock", or both halves, like "sing-song", or neither half, like "boogie-woogie".

Since the word reduplication has three meanings relevant to our discussion—the process, the result of the process (that is, the new word), and the element repeated—let us avoid confusion by calling these words "twin-words".³⁾

2) "각 개별언어는 모든 언어에 공통된 보편적 특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개별언어의 특질이란 것은 대체로 표면상의 것이다." 남기섭, 이정민, 이홍배(1979), 「언어학개론」, 서울: 탑출판사, p. 10.

3) Stageberg, Norman C. (1977), *An Introductory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p. 133-4.

쌍둥이말은 세 가지 類形으로 分類할 수 있다. “Boogie—woogie” 같은 子音對立型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dilly—dally” 같은 母音對立型을 論하고, 마지막으로 同一形態素로 된 것을 言及하기로 한다.

2.1 子音의 對立

쌍둥이말은 앞뒤의 形態素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對立을 이루는 것과 對立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區別할 수 있다. 또 對立이 이루어 지는 部類를 細分하면 子音으로 對立되는 것과 母音으로 對立되는 것으로 兩分된다. 이 節에서는 子音으로 對立을 이루는 部類를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의 경우 이런 形態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boogie—woogie</i>	(+anterior	→-anterior)
<i>fuddy—duddy</i>	(-plosive	→+plosive)
<i>hanky—panky</i>	(-anterior	→+anterior)
<i>heebie—jeebie</i>	(-anterior	→+anterior)
<i>helter—skelter</i>	(-anterior	→+anterior)
<i>hocus—pocus</i>	(-anterior	→+anterior)
<i>hotsy—totsy</i>	(-anterior	→+anterior)
<i>hootchy—kootchy</i>	(-plosive	→+plosive)
<i>hugger—mugger</i>	(-anterior	→+anterior)
<i>hum—drum</i>	(-anterior	→+anterior)
<i>lovey—dovey</i>	(-plosive	→+plosive)
<i>nit—wit</i>	(+anterior	→-anterior)
<i>razzle—dazzle</i>	(-plosive	→+plosive)
<i>roly—poly</i>	(-plosive	→+plosive)
<i>rowdy—dowdy</i>	(-plosive	→+plosive)
<i>super—duper</i>	(-plosive	→+plosive)
<i>teeny—weeny</i>	(+anterior	→-anterior)
<i>tootsie—wootsie</i>	(+anterior	→-anterior)

위의 쌍둥이말에서 子音對立을 조사해보면 그 對立되는 辨別資質이 [anterior]⁴⁾와 [plosive] 둘을 발견하게 된다. 각 어휘 右側에 표시한 것 처럼 [anterior]라는 位置資質이 앞 形態와 뒤의 形態의 辨別的資質이 되어 對立을 明示해 주는 것이 18개 어휘 중에서 11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boogie—woogie

<u>boogie—woogie</u>		
anterior	+	-

처럼 對立되는 子音 *b*와 *w*가 [+anterior]에서 [-anterior]로 되는 것이 있고, 그 반대로 *hotsy—totsy* 같이 對立되는 子音이 [-anterior]에서 [+anterior]로 되는 것이 있다. 前者는 對立되는 子音의

<u>hotsy —totsy</u>		
anterior	-	+

造音位置가 앞에서 뒤로 移動된 것을 말하며 그런 類는 boogie—woogie를 비롯, 여 nit—wit,

teeny—weeny, tootsie—wootsie 가 있다. 그리고 後者は 對立되는 子音의 造音位置가 뒤에서 앞으로 移動된 것을 말한다. 이런 예는 hanky—panky, heebie—jeebie, helter—skelter, hocus—pocus, hotsy—totsy, hugger—mugger, hum—drum 등이 있다. 이런 類가 7개나 되어 많은 비증을 차지하고 있다.

roly—poly
plosive — +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音韻素質 [plosive]가 앞뒤 形態를 區別해 주는 辨別素質이 되는 경우가 있다. 子音으로 對立을 이루는 어휘로서 위에 소개된 18개 중 素質[anterior]가 辨別素質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7개가 모두 [plosive]로 對立된다. 흥미있는 현상은 이런 경우에 모두 [-plosive]에서 [+plosive]로 된다. 다시 말하면 子音으로 앞뒤 形態가 대립을 이루는 쌍둥이말은, [plosive]가 對立되는 辨別素質이 될 때는, 파열음이 아닌 子音이 앞의 形態소의 첫 소리가 되고 반복되는 形態소의 첫 소리는 파열음 p, b, t, d, k, g 중에 어느 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⁵⁾

英語의 쌍둥이말에서 子音對立의 경우, 앞뒤 形態素 사이의 對立은 音韻的으로 요약하면 [α anterior]→[- α anterior]⁶⁾로 되는 것과 [-plosive]→[+plosive]⁷⁾로 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anterior]와 [plosive]가 辨別素質이 되지 않고, [consonantal]이 그 辨別素質이 된다. 韓國語의 쌍둥이말을 辭典에서 比較的 많이 수집할 수 있어 여기에 例示하며 검토하기로 한다.⁸⁾ 한국어의 예는 大部分이 母音으로 시작되는 것이 많고, 극히 적은 예가 半母音으로 시작하는 子音對立 쌍둥이말을 찾아 볼 수 있다. 母音으로 시작되는 쌍둥이말은 空子音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어휘를 가진 形態가 ϕ →p형이다. 이 形態는 앞 形態素의 첫 子音이 空子音이고 뒤의 形態素의 첫 子音이 「ㅂ, ㅍ, ㅃ」으로 시작되는 形態를 (전의상) 말한다. 筆者가 조사한 바로는 子音對立 쌍둥이말 가운데에서는 ϕ →p형에 속하는 것이 34개로 가장 많다.

어금—버금	영이야—빙이야	울썩—불썩	울고—불고
어긋—버긋	영정—빙정	울퉁—불퉁	울긋—불긋
어근—버근	오동—보동	우글—부글	울뚝—불뚝
야장—바장	오동—포동	우락—부락	울퉁—불퉁
아득—바득	울강—불강	우리—부리	울썩—불썩
아둥—바둥	울공—불공	우질—부질	울퉁—불퉁
아근—바근	울근—불근	울경—불경	울퉁—불퉁
언거—번거	울긋—불긋	울근—불근	이현령—비현령
앵글—빙글	울룩—불룩		

4) Shane (1973), pp. 29-30.

5) 筆者가 쌍둥이말을 수집하지 못한 어떤 자료가 여기에 위배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나, 筆者의 좁은 조사의 범위내에서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6) [anterior]에 관하여는 Shane, Sanford A. (1973), *Generative Phonology*, New Jerse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pp. 15-6을 참조할 것.

7) 素質[plosive]는 이 경우에 必要하다고 보고 선택한 것이며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아 인정되리라고 판단이 된다.

8) 양주동 감수 (1975), 「새국어대사전」, 서울:한영출판사, pp. 1-2028.

다음은 $\phi \downarrow \text{ㄷ}$ 형이 23개로 두번째로 많은 어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형태는 첫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되고 뒤의 形態素는 「스, 츠, ㅈ」으로 시작되는 쌍둥이말을 말한다.

아기—자기	에다—제다	울멍—줄멍	웅긋—쥡긋
엉기—정기	울막—줄막	울묵—줄묵	우글—쥡글
여기—저기	울망—줄망	웅몽—줄몽	우묵—쥡묵
오롱—조롱	웅기—중기	이열—치열	우물쩍—쥡물쩍
오묵—조묵	웅기—중기	울렁—출렁	우물—쥡물
오밀—조밀	울떡—줄떡	웅긋—쥡긋	

다음은 $\phi \rightarrow t$ 형을 살펴보자. 이 형태는 16개로 세번째로 많은 子音對立 쌍둥이말이다 $\phi \rightarrow t$ 형은 앞 형태소의 시작이 모음이고, 뒤의 형태소의 시작은 「ㄷ, ㅌ, ㅌ」인 형태를 말한다.

어런—더런	알쑹—달쑹	얼룩—덜룩	오순—도순
어루퉁—더루퉁	알롱—달롱	알근—달근	오틀—도틀
아옹—다옹	아롱—다롱	엄병—덤병	우틀—두틀
애동—대동	아룩—다룩	에구—데구	엇친데—덜친다

다음으로 $\phi \rightarrow s$ 형이다. 이 형태는 5개의 어휘를 가지고 있으며, 앞의 形態素가 母音으로 시작하고 뒤의 形態素는 「스」으로 시작하는 쌍둥이말을 말한다.

양큼—상큼	얼키—설키	영큼—성큼	오복—소복
알뜰—살뜰			

다음은 $\phi \rightarrow m$ 형이다. 空子音의 앞 형태소에서 「ㄱ」으로 되는 뒤의 형태소를 가진 쌍둥이말이다. 이런 형태는 「언틀—먼틀」 하나만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資料만으로 보면 韓國語의 子音對立 쌍둥이말에는 母音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w→t형이 그중의 하나인데 半母音 w로 시작되어 뒷 부분 형태소는 「ㄷ, ㅌ, ㅌ」으로 시작되는 경우를 말한다.

왈각—달각	월거덕—덜거덕	월겨—덜겨	웁그렁—멩그렁
왈다글—다다글	왈강—달강	월경—덜경	웁경—멩경

또 y→ㄷ형이 있는 데, 半母音 y로 시작하고 뒤의 형태소는 「스, 츠, ㅈ」으로 시작되는 쌍둥이말을 말한다. 이 경우는

요날—조날	요래—조래	요랫다—조랫다	요러나—조러나
요래라—조래라			

話者로부터 멀고 가까움을 뜻하는 의미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다. 하여간 辭典에 나타난 어휘이므로 資料에 넣었다.

韓國語에서 살펴본 子音對立型 쌍둥이말의 音韻特性을 綜合하면, 앞의 形態素는 모두 空子音이 아니면 半母音으로 시작하고 있고 뒤의 형태소는 空子音이 아닌 實子音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의 형태소는 [-consonantal]로 시작해야하고 뒤의 형태소는 [+conso

nantal]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辨別資質은 [consonantal]⁹⁾이 된다.

2.2 母音의 對立

앞 形態素의 強勢있는 母音이 뒤의 形態素의 強勢있는 母音과 다른 形態를 母音이 對立 되는 쌍둥이말로 본다. 英語의 dilly-dally와 韓國語의 「싱숭-생숭」이 그 보기이다. 英語의 경우를 보면

chit-chat	flip-flop	sing-song	wiggle-waggle
criss-cross	knick-knack	pitter-patter	wishy-washy
dilly-dally	tick-tock	ping-pong	zig-zag
ding-dong	tip-top		

앞의 母音은 [+high, -back, -tense]의 音韻資質을 가진 i이고 뒤의 母音은 모두 [+high]의 資質을 가지고 있는 「æ, a, ɔ」이다.¹⁰⁾ 따라서 英語의 母音對音 쌍둥이말은 그 對立 되는 앞뒤 形態素의 辨別資質은 [high]이며, [+high]의 母音이 [-high]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韓國어의 母音對立 쌍둥이말을 살펴보기로 한다. 역시 韓國어에도 이런 類의 어휘가 있다. 그러나 英語에서 없던 것들도 나타난다. 먼저 'i'로 시작되는 예를 보면 'i→æ'형이 있다.

실긋-셀긋	싱숭-생숭	실룩-셀룩	티격-태격
시릉-새릉	실기죽-셀기죽		

이 예는 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i→a형과 i→ya형이 각각 2개씩 발견되었다.

찌그력-짜그락	피장-파장
---------	-------

i→ya형은 i→a형에 半母音 y가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긋-알긋	일기죽-알기죽
-------	---------

즉 i→æ형, i→a형, i→ya형은 모두 영어에서 처럼 [+high]의 母音이 [-high]로 된 것이다.

영어와 다른 경우를 보면 i→a형이 있고

으밀-아밀	홍야-항야	홍똥-항똥
-------	-------	-------

u→a형(뚝-딱, 둥-당, 뚱-땅, 물끄림-말끄림) 또 u→ɔ형(둥-덩), o→u형(보드득득-부드득), 그리고 o→a형(뚝-딱, 움니-암니)이 있다. u→a형과 u→ɔ형은 [+back, +high]인 u가 [-high, -back]인 a, ɔ로 되었다. 또 o→u형과 o→a형은 [+back, -high]인 o가 [+high, +back]인 u가 되는 경우와 [-high, -back]인 a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α high]의 資質을 가진 母音이 반복부분에서는 [-α high]로 되는 것과 [α back]인 것이 [-α back]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後者에 속

9) Schane, Sanford A. (1973), *Generative Phonology*, New Jerse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pp. 26-8.

10) Stageberg, Norman C. (1977), *An Introductory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 134.

하는 것은 i→a형, i→ya형, i→a형, u→a형 및 u→a형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은 o→u 형과 o→a형이다.¹¹⁾

2.3 同一形態素의 反復

지금까지는 쌍둥이말 가운데에서 앞의 形態素와 뒤의 形態素가 對立을 이루며 質質을 달리 하는 경우를 論하였으나 이 節에서는 앞의 形態素와 뒤의 形態素가 같은 쌍둥이말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의 例를 보면 아래 어휘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말 中에서 이런 形態가 數的으로 가장 적다고 한다.¹²⁾ 이런 형태는 단조로운 것이며 擬聲語的(onomatopoeic) 性格을 띠고 있다.¹³⁾

clop—clop	gobble—gobble	pooh—pooh	tick—tick
chug—chug	quack—quack		

한국어의 경우는 이 同一形態가 反復되는 형태가 쌍둥이말에서 가장 많은 部類라는 점에서는 英語와 다르다. 그러나 擬聲語的인 점은 英語와 韓國語가 共通의이다. 많은 어휘자료를 좀더 세분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기본형태소 내에 각 音節의 母音이 같은 것 부터 言及하기로 한다.

a—a형

가닥—가닥	달막—달막	날강—날강	알랑—알랑
다닥—다닥	달씩—달씩	남상—남상	아창—아창
다달—다달	달카닥—달카닥	남작—남작	아장—아장
딱—딱	달카당—달카당	난창—난창	아작—아작
다다귀—다다귀	담—담	남—남	아름—아름
닥다글—닥다글	땅—땅	바작—바작	앙알—앙알
닥작—닥작	당—당	반관—반관	왓박—왓박
달가닥—달가닥	나닥—나닥	발맘—발맘	자락—자락
달가당—달가당	나달—나달	발빔—발빔	자란—자란
달강—달강	난작—난작	살망—살망	자박—자박
달—달	날쌔—날쌔	살강—살강	자장—자장
달랑—달랑	날짱—날짱	알짱—알짱	타박—타박

a—a형은 한국어 쌍둥이말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모음이 동일하고 또 그런 형태소가 반복되어 쌍둥이말이 되므로 변화가 적은 단조로운 소리가 반복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단조로운 반복은 의성어적인 성격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형태소 내부에 담긴 의미적 성격 보다는 자연적인 소리를 그대로 본떠서 모방한 소리의 반복으로 들리게 된다. 대부분이 두음절의 형태소가 반복되는 경우이지만 근소수의 한음절 형태소의 반복이 있으며(땅—땅처럼) 세음절의 형태소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아」는 한국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모음 中의 하나이다.

11) Schane, Sanford A. (1973), pp. 68-72 참조.

12) Norman C. Stageberg (1977), p. 133 참조.

13) Onomatopoeia(擬聲語)는 自然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기 때문에 言語記號의 자의성(arbitrariness)에 대하여 예외적이다.

다음은 a-a형을 살펴 본다. a-a형도 가장 많은 반복어 중의 한 형태이다. 「어」는 「아」와 더불어 한국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a-a형

너덕—너덕	더덜—더덜	덜—덜	멍털—멍털
너덜—너덜	더럭—더럭	덜렁—덜렁	버적—버적
너불—너불	더뻑—더뻑	덜커덕—덜커덕	서적—서적
너붓—너붓	더뵙—더뵙	덜커덩—멍커덩	서벅—서벅
너절—너절	더뿔—더뿔	덤—덤	설렁—설렁
너털—너털	덕적—덕적	덤빙—덤빙	설멍—설멍
너뿔—너뿔	뻏—뻏	덤적—덤적	영절—영절
넙적—넙적	덜거덕—덜거덕	덤절—덤절	열렁—열렁
넙성—넙성	덜거덩—덜거덩	덩—덩	터벅—터벅
더더귀—더더귀	덜경—덜경	뻏—뻏	허벅—허벅
더덕—더덕			

또한 a-a형과 a-a형의 비교에서 한국어에서 발견되는 특성으로 보이는 현상은 a-a의 음성이 의미를 실게 될 때 동작이나 그 모습이 조그만하고 소규모적인 느낌을 주고있음에 반하여, a-a형은 그 실려진 의미가 (동작이나 그 모습이) 크고 대규모적이며 멋없어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된다. 예컨대 「나달나달이라는 말을 작은 느낌을 주고 「너덜너덜」은 큰 느낌을 주고있다. 「덩덩」과 「당당」, 「뻏뻏」과 「뻏뻏」, 「덜거덕」과 「달가닥」, 「설렁」과 「살랑」 등을 비교해 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

이러한 견해도 반드시 적용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국어에서 강력한 특징으로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는 이에게는 「a」가 「a」보다 작고 예쁜 동작이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내면화된 지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o-o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기본 형태소 내의 각 음절의 모음이 같은 형태로 a-a와 a-a를 언급하였다. 세번째로 그 분포가 많은 것이 o-o형이라고 본다. 다음 제시한 목록에서 「도도룩」과 「오도둑」의 경우는 세음절로 구성된 형태소들로서 세 음절이 모두 「o」모음을 지니고 있어서 그 모음조화를 철저히 준수한 예가 된다. 그러나 앞의 경우들과 같이 두 음절로 구성된 「도둑」, 「불뚱」등의 예가 보편적이다. o-o형은 a-a형과 같이 작고 예쁜 동작이나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의미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소곤곤—소곤」은 「수근—수근」보다 작은 느낌을 주고 「옴푹—옴푹」은 「옴푹—옴푹」보다 그 파인 모양이 작고 예뻐 보이는 표현이다.

o-o형

도도룩—도도룩	불쑹—불쑹	도뿔—도뿔	옴푹—옴푹
도둑—도둑	불뚱—불뚱	오도둑—오도둑	옹송—옹송
불뚱—불뚱	소곤—소곤	옴—옴	포동—포동
불룩—불룩	소룩—소룩	오줄—오줄	

이제 부터는 기본형태 내의 음절의 모음이 다른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a-i

너슬 : 너슬	더금—더금	더듬—더듬	덜그렁—덜그렁
---------	-------	-------	---------

버름—버름	어숙—어숙	어름—어름	얼금—얼금
벌긋—벌긋	어글—어글	어른—어른	영금—영금
벌름—벌름	어긋—어긋	어글—어글	

a-i형에서 첫 음절의 모음 a와 다음 음절 i는 모두 음성모음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예외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강력한 한국어 특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음 조화에 부합되는 형태의 모음연결이라고 본다. a-a형, a-ə형, o-o형은 단조롭고 변화 없는 음운구조를 지니며 의성어적인 성질을 띤 반면에 a-i형과 같이 각각 다른 모음끼리 짝지므로 변화가 있고 의성어적인 느낌이 덜하고 기본 형태소가 독립된 의미가 실려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형태소가 독립된 의미를 실고 있는 것은 모음의 연결이 변화있고 다양해진다 고 볼 수 있다.

다음은 u-ə형을 보자, 아래 목록에서 처럼 u-ə형은 u가 음성모음이고 따라서 큰 동작 큰 모습 등을 의미하고 ə도 마찬가지로.

u-a

꿀적—꿀적	굽적—굽적	부격—부격	주렁—주렁
꿀떡—꿀떡	누덕—누덕	부석—부석	주섬—주섬
꿀렁—꿀렁	뚜덕—뚜덕	부잉—부잉	주절—주절
굴떡—굴떡	두덜—두덜	우럭—우럭	줄렁—줄렁
굴씩—굴씩	두런—두런	우렁—우렁	줄멍—줄멍
꿀쩍—꿀쩍	뚜벅—뚜벅	우적—우적	투덕—투덕
굽적—굽적	둥덩—둥덩	울떡—울떡	

따라서 u-ə형은 작고 예쁜 동작이나 모습을 뜻하지 않고 크고 어색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다. 물론 밝은 모음으로 대비되는 말이 있는 경우에 명확하게 비교가 되지만, 대립되는 밝은 모음으로 된 말이 없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크고 작음에 관계되지 않는다. 「꿀적—꿀적」에 대립되는 말은 「꿀작—꿀작」이고 「줄렁—줄렁」의 대립되는 말은 「줄랑—줄랑」이다. 그러나 「울떡—울떡」에 대립되는 양성모음으로 된 말은 「울막—울막」으로 가상은 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 이런 말은 없다.

다음에 나열한 것은 u-i형이다. u-i형도 앞의 u-ə형과 같이 u가 음성모음이고 i도 음성모음이다. 따라서 크고 멧없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 된다. 여기서 i가 음성모음이기 는 하지만 중성모음에 가까운 성질을 알아 보기로 한다. 「누룩—누룩」에 대립되는 작은 말은 「노룩—노룩」이다. 또 「둥글—둥글」에 대립되는 작은 말은 「동글—동글」이다. 「몽클—몽클」

u-i형

굵틀—굵틀	둥글—둥글	복슬—복슬	우들—우들
굵슬—굵슬	몽그적—몽그적	봉긋—봉긋	주근—주근
누긋—누긋	몽클—몽클	수득—수득	쭈글—쭈글
누룩—누룩	부글—부글	수들—수들	추근—추근
두근—두근	부등—부등	우그렁—우그렁	푸뜩—푸뜩
두글—두글	부들—부들	우글—우글	푸룻—푸룻
뚜드럭—뚜드럭	부슬—부슬	우긋—우긋	푸슬—푸슬

의 작은 말은 「몽글—몽글」이며 「부글—부글」의 작은 말은 「보글—보글」이고 「우글—우글」의 작은 말은 「오글—오글」이다. 이 모든 예에서 *i*는 큰말에서도 사용되어 *u-i*형이 될 뿐 아니라, 작은 말에서도 사용되어 *o-i*형이 된다. 따라서 *i*는 중성모음의 성격이 농후한 것 같다.

다음은 *o-a*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o-a*형

꼬박—꼬박	도박—도박	소말—소말	울강—울강
노닥—노닥	똑딱—똑딱	쓸라다—쓸라다	옹알—옹알
또닥—또닥	모락—모락	송당—송당	옹잘—옹잘
도담—도담	모람—모람	송알—송알	조마—조마
도란—도란	보암—보암	오씩—오씩	조만—조만
도랑—도랑	부작—부작	오작—오작	조잘—조잘
또랑—또랑	불강—불강	옥작—옥작	졸망—졸망
도탁—도탁	소마—소마	울작—울작	

위의 어휘목록에서 *o*는 양성모음으로 밝고 예쁘고 작은 느낌을 주는 모음이고 뉘따라 오는 *a*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o-a*는 잘 형성된 모음조화의 짝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꼬박—꼬박」의 큰말은 「꾸박—꾸박」이라고 예측되지만, 「꼬박—꼬박」은 「거르는 말이 없이」라는 뜻이고, 「꾸박—꾸박」은 줄음이 오거나 절을 할 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뜻한다. 즉 형태론적으로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큰말과 작은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의미로 보면 관련이 있을 지 모르지만 엄격히 말해서 별개의 뜻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의미까지도 쉼표를 지어 주는 우리말의 쌍둥말 모음조화는 많이 남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똑딱—똑딱」의 큰말은 「뚝뚝—뚝뚝」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말은 우리의 언어집관으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뚝뚝—뚝뚝」은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다.

그러나 「오작—오작」의 큰말은 「우적—우적」이고 「부작—부작」의 큰말은 「복적—복적」으로 되어 의미가 크고 짝음의 자질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을 재론하지 않고 여기서는 양성모음은 음성모음과 짝을 이루되 의미와도 규칙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일반성을 가지는 규칙이 아님을 살펴 본 셈이다. 모음조화는 음운론적인 과정으로 볼 때 더욱 강력한 성질이 되는 것 같다. 음운론적으로는 한국어에서 모음조화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음운현상인 것 같다. 비록 매립되는 말은 없다 하더라도 「노닥—노닥」, 「도담—도담」, 「도탁—도탁」, 「보암—보암」, 「소마—소마」, 「오씩—오씩」 등 *o*와 *a*의 모음이 잘 조화된 짝인 것은 사실이다.

다음은 *a-i*형을 살펴 보기로 한다.

*a-i*형

나근—나근	따근—따근	바득—바득	알금—알금
나긋—나긋	따끔—따끔	바들—바들	아슬—아슬
나슬—나슬	다듬—다듬	바슬—바슬	아름—아름
날름—날름	달그랑—달그랑	발긋—발긋	자긋—자긋
날큰—날큰	빠끔—빠끔	상긋—상긋	차근—차근

여기서는 a가 양성모음인데 뒤따라 오는 모음은 음성모음 i이다. 모음조화로 보아 잘 조화된 것으로는, i를 일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성모음으로 보면, 「나슬—나슬」과 「너슬—너슬」 같은 경우이다. 또 「날름—날름」과 「널름—널름」, 「달그렁—달그렁」과 「덜그렁—덜그렁」, 「빠끔—빠끔」과 「피끔—피끔」, 「바들—바들」과 「버들—버들」, 「알금—알금」과 「얼금—얼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따끈—따끈」의 대립되는 말은 「떠끈—떠끈」으로 예상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말은 없다. 「자긱—자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긱—저긱」이라는 말은 한국어에서는 의미를 실지 못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하여튼 i가 양성모음과도 어울리고 음성모음과도 어울리는 중성모음이라는 가설을 다시 살펴 본 셈이다.

다음은 a—i형을 살펴 보자. 양성모음 a와 중성모음 i가 연결되어 반복되는 형태이다.

a—i형

간실—간실	남실—남실	박실—박실	아쩨—아쩨
갈기—갈기	남신—남신	상깃—상깃	아질—아질
나릿—나릿	닥지—닥지	알쩨—알쩨	아리송—아리송
나직—나직	땀직—땀직	아킷—아킷	자띷—자띷
난질—난질	당실—당실	아칠—아칠	자질—자질
날써—날써	당깃—당깃		

위의 목록에서 「남실—남실」의 큰말은 「넙실—넙실」이고, 「남신—남신」의 큰말은 「넙신—넙신」이며 「닥지—닥지」의 큰말은 「떡지—떡지」, 「당실—당실」의 큰말은 「명실—명실」, 「알쩨—알쩨」의 큰말은 「얼쩨—얼쩨」, 「아쩨—아쩨」의 큰말은 「어쩨—어쩨」이다. 그러나 「간실—간실」의 대립어로 「견실—견실」이 될 수 없고, 「갈기—갈기」의 대립어로 「걸기—걸기」를 쓸 수 없다.

다음은 o—i형을 살펴 보자. 밝은 모음 o에 뒤이어 중성모음 i가 연이어 오는 형태이다

o—i형

눅실—눅실	도리반—도리반	움실—움실	조릿—조릿
눅실—눅실	둥실—둥실	움질—움질	졸깃—졸깃
눅진—눅진	옥신—옥신	웅기—웅기	토실—토실
도리—도리			

역시 대립되는 큰말을 살펴 보자. 「눅실—눅실」의 큰말은 「눅신—눅신」이고 「눅진—눅진」의 큰말은 「눅진—눅진」이며 「도리반—도리반」의 큰말은 「두리번—두리번」이다. 「둥실—둥실」의 큰말은 「둥실—둥실」이며 「옥신—옥신」의 큰말은 「옥신—옥신」이 되며 「움질—움질」의 큰말은 「움질—움질」, 「웅기—웅기」의 큰말은 「웅기—웅기」이고 「토실—토실」의 큰말은 「투실—투실」이다. 비교적 잘 짝지어진 형태들이 이 부류에 많다.

다음은 a—o형이다. 밝은 모음 a와 o가 잘 조화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위의 목록에서 보듯이 대립되는 큰말이 드물다. 「다득—다득」에서 「더득—더득」을 가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없고, 「따로—따로」, 「알뽕—알뽕」등도 대립어가 없는 것 같다.

a—o형

다득—다득	다보록—다보록	담쑹—담쑹	알뽕—알뽕
따로—따로	다부—다부	알뽕—알뽕	알통—알통

다음은 i- ə 형으로 다음 다섯 예를 찾을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i음이 앞에 놓인 경우가 드문 일인데 i- ə 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성모음 i에 이어 음성모음 ə 가 연결되어 형성된 경우이다. i가 앞에 오는 경우로는 a-i형, o-i형이 있었다.

i- ə 형

기업-기엄

비적-비적

이엄-이엄

티석-티석

미적-미적

이상 언급한 외에 o- æ 형 등이 있다.

o- æ 형

솔래-솔래

오래-오래

극히 드문 예들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한다.

위의 분류를 보면 한국어에서 모음조화가 큰 비중을 두고 반영되어 있음을 입증해 준다. 한국어의 모음조화라고 하는 것은 밝은 모음은 밝은 모음끼리 어울리고 어두운 모음은 어두운 모음끼리 어울린다는 성질을 말한다. 밝은 모음이라 함은 「아, 야, 오, 요」를 말하고 어두운 모음이라 함은 「어, 여, 우, 유」를 말한다.¹⁴⁾ a-a형, o-o형, a-o형, o-a형, o- æ 형은 모두 밝은 모음끼리 조화된 것들이라고 보며, ə - ə 형, ə -i형, u-i형, u- ə 형은 어두운 모음끼리 조화된 것이고, a-i형, o-i형, i- ə 형은 중성모음 i와 섞이어 조화된 것이다. 그러나 a-i형은 모음조화에 벗어난 예이다. 따라서 한국어에 모음 조화현상은 강력한 성질이긴 하지만 반드시 적용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結 論

英語와 韓國語의 쌍둥이말은 共通으로 boogie-woogie와 같이 앞뒤 形態素 사이의 맨 앞자음이 對立을 이루는 경우와, dilly-dally와 같이 강세받은 母音이 對立을 이루는 경우, 그리고 전혀 對立을 이루지 않고 同一한 形態가 反復되는 경우로 되어 있다.

子音對立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英語 쌍둥이말은 音韻實質이 된다. 한국어의 경우는 앞뒤의 形態素 사이의 (각각 첫 子音 사이의) [consonantal]이 辨別實質이 된다. 한국어에서는 앞 形態素는 [-consonantal]인 母音 또는 半母音으로 시작되고 뒤 形態素는 [+consonantal]로 시작된다.

母音이 對立되는 경우의 쌍둥이말은 英語는 [-high]와 [+high]로 對立되어 [high]가 辨別實質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ahigh]가 [- α high]로 되어 英語의 辨別實質을 危殆하게 된다. 그러나 韓國語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α back]인 것이 [- α back]인 母音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同一한 形態가 反復되는 경우의 쌍둥이말은 영어나 한국어에서 모두 變化가 되고 단조로운 韻律的인 性格이 짙다. 특히 韓國語에서는 母音調화가 強力한 言語特性으로 存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母音調和는 그 例外도 많기 때문에 完全規則은 아니다. 母音調和 현상은 쌍둥이말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반

14) 郭鐘元, 金潤成, 柳周鉉 (1961), 「文章大典」, 서울: 新太陽社, pp. 650-653.

최현배 (1975), 「우리말본」, 서울: 경음사, pp. 112-113.

복되는 앞뒤의 두 형태소 사이에서도 母音調和는 잘 설명이 되고 있는 편이다.

쌍둥이말을 통하여 단조로운 것일수록 독립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다양한 것일수록 독립된 의미를 지니는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영어와 한국어의 특성이 크게 비슷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표현으로는 서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 Chomsky, Noam and Morris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 Elgin, S.H. (1979), *What Is Linguistics?*, New Jerse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Hyman, L.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arper and Row.
- Matthews, P.H. (1974), *Morpholog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ne, Sanford A. (1973), *Generative Phonology*, New Jerse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Stageberg, Norman C. (1977), *An Introductory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金完鎭 (1977),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서울: 一潮閣.
- 郭鐘元의 2人 (1961), 「文章大典」, 서울: 新太陽社.
- 남기십의 2人 (1979), 「언어학개론」, 서울: 탑출판사.
- 文洋秀의 9人 (1977), 「現代言語學」, 서울: 翰信文化社.
- 양주동 갈수 (1975), 「새국어대사전」, 서울: 한영출판사.
- 전형진 역 (1981), 「生成音韻論」, 서울: 螢雪出版社.
- 최현배 (1975),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仁川大學

英語英文學科 助教授